

# 제네시스 GV80, 고급 SUV 판 흔드나

뛰어난 상품성 · 가성비로 GLE · X5 등 수입차와 경쟁 본격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선봉장... 북미 · 유럽서 판매 확대 기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V80 출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입 차량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시험할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GV80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판매 확대도 노리고 있다. 부진한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의 선봉장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이달 말 GV80을 출시한다. 지난 2015년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세단과 SUV를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게 되는 셈인데, 연이어 공개되는 디자인 및 사양 등에

따라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으나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글로벌 고급차 시장은 2010년부터 연평균 7%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G70 · G80 · G90 등 세단 라인업만 갖춘 제네시스에서 GV80의 역할이 기대되는 배경이다. 제네시스는 개발 단계부터 수입 프리미엄 모델을 겨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GLE와 BMW X5, 아우디 Q7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벤츠 · BMW · 아우디 등 독일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지만, 성능과 사양, 디자인 등

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근거는 충분하다. GV80에는 방향지시등을 켜면, 알아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 'HDA2' (Highway Driving Assistant 2)가 탑재된다. 이는 실제 도로 환경과 차량에 적용 가능한 최상위 자율주행 기술로 평가 받는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 (RANC · Road-noise Active Noise Control)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도로 주행 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노면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 이를 상쇄시키는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발생시켜줌으로써 실내 잔류음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스마트폰만으로 자동차의 출입과 시동 · 운행 · 차량 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키'도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적용한다.

또한 대시보드 상단에는 가로배치된 14.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새롭게 개발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홀로그램을 투영, 실제 도로와 건물 위에 이동방향과 제 한속도, 위험경보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차량 내 간편 결제 기능을 갖춘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 같은 상품성에도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파워트레인에 따라 6000만~8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이란 업계 분석이다. 당초 엔트리 트림 가격을 5000만원대로 설정했으나, 프리미엄 수입 SUV와 비교해 성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에 판매가격을 높인 것이란 분석이다.

경쟁 모델인 GLE는 9030만~1억1050만원, X5는 9790만~1억3890만원, Q7은 7840만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GV80을 내세워 북미 및 유럽시장 재공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이 탄탄한 국내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는 의문부호가 따르는데,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격전지에서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내년 출시 예정인 GV70 및 G80 완전변경 모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제네시스가 그동안 북미에서 라인업의 한계와 부실한 딜러망으로 부진했으나, SUV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모델로 내놓으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유럽은 소형차가 득세하고 있으나 프리미엄 모델로서 '가성비' 전략이 먹힌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역습

### 국내 빙과업계 '한숨'

최근 6개월 사이에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고급 원료를 넣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을 내세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침체를 겪고 있는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효자'가 됐다. 핏기가 나온다.

하지만 '미끼 상품'으로 전략해 싸게 파는 것이 당연시된 국내 아이스크림 브랜드로서는 현 상황이 여러 모로 불리하다. 판매량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헤일로탑에 이어 '벤앤제리스' (Ben & Jerry's)를 입점시켰다. 이로써 하겐다즈를 포함한 글로벌 1~3위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모두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유통사들이 이같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 7월 GS25와 GS슈퍼에 첫 선을 보인 헤일로탑은 9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입점, 인기를 끌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헤일로탑을 입점시킨 후인 9~10월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났다.

벤앤제리스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벤앤제리스를 시범 판매했던 GS25가 9월 한 달간 아이스크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벤앤제리스를 판매했던 점포 24곳의 아이스크림 매출은 일반 점포 대비 3.2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판매 가격이 다른 아이스크림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통사들은 수입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국내 아이스크림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아이스크림 업계에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빙과를 중심으로 가격정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매점의 반발이 심해 여의치 않다.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기존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차별' 정책은 국내 업체의 설 자리를 더 넓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 소리도 나온다. 끊임없는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내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등 타개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매 시장에서 판매량이 아무리 많아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빙과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들쭉날쭉하면서 불거진 소비자들의 '가격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입 제품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기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수입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별도로 마련된 냉동고에 따로 진열하며 가격을 깎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데, 실제 원가는 알 수 없다"면서 "소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아닌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이폰도 복고 바람?... "아이폰12, 10년전 아이폰4 디자인으로 회귀"

애플이 내년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2'이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가 있었던 아이폰X 때처럼 외형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폰아레나는 그동안 유출된 아이폰 12의 정보를 토대로 제작한 아이폰 12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

폰12는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이폰6부터 채택한 곡선형 디자인을 버렸다. 대신 더 이전 출시된 아이폰4의 일명 '다이아몬드 커팅' 금속 프레임 디자인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폰아레나는 "애플의 디자인 일관성을 고려할 때 아이폰 역시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이폰12의 전면 디자인의 큰

변경점은 '노치' 디자인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아이폰12는 페이스ID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치를 유지하지만 노치의 크기가 이전 모델들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폰아레나는 후면에는 최근 증강현실(AR) 기능을 힘 쏟는 애플의 기조와 더불어 애플 최초의 쿼드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측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